

【 해외금융 뉴스: 중국 】

내수확대 중심의 경제성장 계획

- 중국은 제12차 5개년 경제계획(2011-2015)에서 물가안정과 고용창출을 최우선 하겠으며 경제성장에서 소외된 계층을 포용하는 민생개선을 추진하고 사회 불균형을 해소함으로써 지속 성장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발표함.
 - 중국은 지난 13년간 유지된 연 평균 8%의 경제성장 목표 대신 향후 5년간 7% 안팎의 성장을 유지하여 경제과열 현상을 억제하며 물가안정과 내수확대 전략을 택해 소비, 투자, 수출이 균형을 이루는 경제성장을 견인하겠다고 밝힘.
 - 특히 부동산가격 등 물가안정에 대한 대처는 금년 경제의 최대 과제로 꼽힘.
 - 소비자물가지수 상승폭을 지난해 보다 1% 높은 4%안팎에서 억제하며 이를 위해 M2를 16%대로 유지하는 통화정책을 시행할 예정임.
 - 이와 같은 변화는 중국 경제가 걸으려는 발전하지만 갈수록 불균형이 확대되며, 이로 인해 지속 성장 가능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것에 기인함.
- 제12차 5개년 계획의 핵심 목표는 고용증대·소득향상을 통한 내수확대로 집약되는데 이로 인해 중국의 교역상대국은 경제부양 효과를 얻는 반면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 축소로 선진 채무국의 부담은 커질 것으로 전망됨.
 - 중국은 수출·투자 주도형 성장을 뒷받침했던 제조업 발전모델에서 탈피함에 따라 경제성장은 다소 느려지겠지만 노동집약적인 서비스업 모델(도·소매업, 물류 운송, 의료, 레저와 관광)에 집중하면서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함.
 - 전체 GDP의 42%에 불과한 개인소득(미국의 절반 수준)을 늘려 내수의 저변을 확대할 것으로 보이는데, 특히 1인당 평균 소득이 도시 노동자의 30%에 불과한 농촌지역 노동자의 소득을 올려 구매력을 높이고, 유명무실한 사회보장보험, 민영연금, 의료보험, 실업보험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함으로써 저축을 줄이고 소비를 확대하는 소비진작을 추진하기로 함.
 - 내수 위주 성장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줄어들면 미국 국채를 구매할 여력도 그만큼 축소되기 되기 때문에 미국 같은 채무국의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.

(Wall Street Journal 3/6)